

15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절

Chapter

롬 12:9~21

찬송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87장 (형제의 모습 속에)

오늘 배울



말씀

1. 내적인 면모는 외적인 예절을 통해 드러남을 압니다.
2. 형제자매로서 합당한 예절을 지킬 때 교회의 덕이 세워짐을 압니다.

마음 열기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저를 볼 때마다 인사를 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요즘 같은 세상에 참 보기 드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권하는 말이라면 한번은 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말씀을 듣게 된 계기였습니다.”

– 한 자매의 구원 간증 중 –

올바른 인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올려줍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서로 간에 갖추어야 할 기본 예절이 있습니다. 예절이란 ‘예의’와 ‘범절’의 준말로, 사람과의 사귀에서 공손하며 삼가는 말과 행동 그리고 법도에 맞는 모든 절차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합당한 예절로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매 뵈뵈를 천거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한 상태였고, 더욱이 뵈뵈 자매는 로마 성도들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이기에 그녀를 그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절에서 특별히 인사와 호칭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人事)란 그저 고개를 꾸벅 숙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람과의 사귀에서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신서를 형제자매에 대한 문안 인사로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혹 친근한 사이라고 해서, 혹은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부르고 말을 하다 보면 그로 인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마귀가 틈을 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이에 합당한 예절을 갖추는 때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롬 12:10)

Be kindly affectionate to one another with brotherly love, in honor giving preference to one another. (Ro 12:10)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롬 16:1~2)

(딤펴전 5:1~2)

(요삼 1:5~8)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들의 정체를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평소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선을 베풀다가 천사들을 영접하게 된 것이지요, 본문을 잘 읽고 답해 보세요.

1. 광야의 더위 가운데 지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예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은 일반적인 관례 이상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을 본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들을 맞이했습니까? 2절을 읽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적어 보세요.
2. 당시 아브라함은 99세로 매우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신분이나 나이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몸을 땅에 굽혀 인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평소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3.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떻게 호칭했습니까?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3절을 읽고 적어 보세요.
4. 정성스레 차린 식사를 세 나그네가 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어떤 자세로 있었습니까? 왜 그런 자세를 취했다고 생각합니까? 8절을 읽고 답을 적어 보세요.
5.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는 경우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적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항상 겸손한 자세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 합당한 예절로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만약에 당신이

만약 당신이 투명인간이 된다면?
무엇을 해 보고 싶습니까?



여탕에
가 보고 싶어요.



은행에 몰래 들어가
돈봉치를 슬쩍...



알미운 녀석을
때려줄 거예요.



짝사랑하는 사람을
몰래 따라다닐 수도
있겠네요.

투명인간이 돼서 해 보고 싶은 게
전부 죄짓는 일밖에 없네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 51:5)

에티켓의 유래

옛날 베르사유 궁전에 한 늙은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늙은 정원사는 충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성스럽게 정원을 돌보았고 정원의 꽃과 나무를 가꾸며, 아름답게 꽃이 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쁨을 한번도 맛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원을 잘 가꾸어 놓으면 궁전에서 조신들과 그 부인들이 꽃밭에 몰려와서 마구 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이 늙은 정원사는 왕에게 감히 탄원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정을 받아서 루이 14세는 어명으로 '에티켓'이라고 쓴 자그마한 팻말을 여러개 만들어서 꽃밭 사이 사이에 세워 놓고 그 팻말 안으로만 조심스럽게 걷도록 하였습니다.

에티켓은 'Aticket' 곧 '하나의 풋대'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에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당연히 기대되는 생활 규범이 있고, 신앙인이기에 마땅히 지켜야하는 생활 양식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예절이 있으며 소망에 합당한 언행과 예절이 분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